

여수 아름다운 해안선 잇는 해상교량 건설 본격화

돌산~경도~신월웅천~소호구간 1154m 첫삽...670억원 투입 2022년 완공
원도심 집중 관광 분산하고 교통체증 해소...소호 밤바다 새 관광명소 될 듯

지난해 1500만 관광객을 달성하면서 국내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한 여수시가 아름다운 해안선을 잇는 해상교량 건설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여수 밤바다와 낭만포차 등 원도심에 집중된 관광지 분산 효과는 물론 원활한 교통 흐름 효과를 동시에 거둔다는 계획이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웅천 신도심에 울마루 광장에서 착공식을 갖고 여수 돌산에서 경도-신월웅천-소호를 잇는 도심 외부순환도로의 첫 시지점인 웅천-소호구간 해상교량 건설에 본격 돌입했다.

웅천 예울마루 방면에서 아름다운 여수 바다를 가로질러 소호까지 연결 될 이 도로는 총 길이 1154m, 폭 26m의 4차로다. 이중 해상교량은 550m(사장교 220m, PSC거더교 330m)다.

총 사업비 670여 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인 이번 사업은 해상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디자인을 '이순신 장군의 장검'과 요트를 형상화 해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웅천-소호 간 해상도로 완공으로 도심 외부순환도로 기능과 교통 분산효과로 여천도심권 교통체증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웅천지구에서 생태터널, 망마 삼거리와 여수시청 도심을 잇는 주요 도로는 단일노선으로 지금까지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로 병목현상이 심했던 곳이다.

이와 함께 해상교량을 잇는 현 지점(웅천 예울마루 로타리-소호동 항호마을 삼거리)이 교탄해소 효과보다 병목현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지역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시는 교통량과 차량분산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일각에서 주장한 것처럼 소제마을 터널도로와 맞닿는 지점과 연결될 경우 최소 2-3배의 예산 투입은 물론 시내권 진입 차량의 교통량도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것이다.

실제 여수시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과 교통량 분석 등 사전 사물레이션을 통해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또 교량 건설 이후 병목현상이 심해질 경우에 대비해 소호에서 죽림지구를 잇는 터널 도로 건설 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도로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남양건설(주) 등 4개사를 선정(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설계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아름다운 여수 해안 절경을 잇는 외곽순환도로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근 산업부 주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심의 통과에 따라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향후 미래셋 컨소시엄의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1조



여수시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잇는 해상교량 건설에 본격 돌입했다. 돌산에서 경도~신월웅천~소호를 잇는 도심 외부순환도로의 첫 시지점인 웅천-소호구간 해상교량 건설 조감도. <여수시 제공>

5000억원 규모)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관광만경경제자유구역청은 진입도로(연륙교) 개설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향후 기획재정부에서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도에서 신월동으로 연결될 연륙교는 길이 1.52km, 폭 13.8m인 아치 사장교(860m)로 총사업비 1154억 원(국비 40%·지방비 40%·미래셋 20%)

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미래셋 컨소시엄이 경도를 세계적인 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첫 삽을 뜬 웅천-소호 간 해상교량이 건설되면 예울마루와 장도, 소호 밤바다가 새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도 연륙교 건설 사업은 물론 웅천-소호 구간과 경도-돌산-신월을 잇는 외곽도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국보 304호 진남관서 상량기록물 3점 발견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 본영으로 사용했던 국보 제304호인 여수 진남관에서 보수공사 중 문헌적 가치가 높은 상량기록물 3점이 발견됐다.

여수시는 지난 11일 진남관을 보수·정비하던 중 목판 1점과 철봉함(철로 만든 원통함) 1점, 상량함 1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상량기록물 3점은 진남관 정 중앙 부분에서 나왔다.

여수시와 문화재청은 이 기록물이 1899년(광무3년) 진남관을 부분 보수할 당시 상량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목판에는 진남관을 보수할 당시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센터는 상량함과 철봉함을 보존 처리한 뒤 개봉해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이후에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상량함에 보관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진남관에서 발견된 상량기록물 목판을 살펴보고 있다. <여수시 제공>

진남관은 건물이 기울어져 건물구조 안전 모니터링 결과 전면 해체·보수가 결정됐다.

2015년 12월부터 150억원을 투입해 서까래 해체 등을 거쳐 9월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진남관은 정면 15칸, 측면 5칸, 건물면적 748㎡의 단층 팔각지붕으로 현존하는 지방 관아 건물 중에서 가장 크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체육회 임원진 구성...상임부회장에 류재복씨



여수시체육회를 이끌어갈 임원진 구성이 완료됐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체육회는 지난 15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제3회 이사회(사진)를 열고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 고문 등의 임명 동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는 류재복 동북중기 대표를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조육성씨를 사무국장으로, 김광중 전임

상임부회장 등 3명을 고문으로 임명했다.

새 임원진은 이날 임명장을 받고, 하반기 당면 체육행사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체육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수시체육회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고의 체육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상의, 광주국제청장 초청 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 열어

여수상공회의소는(회장 박용하)는 최근 여수상의 대회의실에서 김형환 광주지방국제청장을 초청, 지역 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수지역 중소기업 등 중견기업들에 국제시장의 다양한 세정 정책을 알리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세정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상봉 여수상의 전 부회장(대광솔루션 대표) 등 기업체 대표 및 임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러한 간담회에서는 국제세정 상담지원국장의 '일자리창출 기업을 위한 세제·세정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은 물론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견의와 함께 해결 방안도 모색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실제 기업 상공인제도 관련 내용과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체납액 납부부부 소멸제도에 대해 김형환 광주지방국제청장과 관계자들의 상세한 답변이 이어져 만족도를 높였다.

박용하 여수상의 회장은 "정부 세제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전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김형환 청장님과 실무 국장님들의 적극적인 설명과 노력으로 지역 상공인들의 세정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 테크니션 스쿨 9기 수료식 지역 청년 취업 등용문 자리매김

여수 테크니션 스쿨이 청년 취업 등용문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9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여수 테크니션 스쿨 제9기 정규과정을 45명의 교육생이 수료했다.

9기 수료생 중 31명은 LG화학과 롯데케미칼, GS칼텍스, 한화케미칼TDI 등에 취업하며 테크니션 스쿨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 등용문을 증명했다. 나머지 교육생들도 9월 현재 여수산단 기업 등의 채용 과정에 있어 추가 취업도 기대되고 있다.

시는 교육생 선발 후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인성교육은 물론 현장실무와 영어 등의 교육과목을 취업 시기에 맞춰 운영했다.

자격증 취득 지원도 돋보였다. 위험물, 가스, 화학분석가능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도해 교육생 1인 평균 4.3개의 자격증 취득이란 결과를 냈다. 자격증을 8개까지 취득한 교육생도 있었다.

특히 시는 정규과정 후에도 미취업자 취업지원단을 운영해 여수산단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면접도 지원했다. 실제 이러한 노력으로 여수 테크니션 스쿨은 1기부터 8기까지 수료생 277명 중 261명(94.2%)이 여수산단 주요 기업체에 취업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시행하다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2018년 마음챙김 시민대학 교육생 모집

광주광역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일상의 행복과 삶의 가치 재발견을 위한 마음챙김 시민대학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적인 태도로 자각하는 것, 대상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되 주관을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일상 속 알아차림
- 모집개요

자격요건	교육내용	교육시간	모집인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마을과 명상 이야기, 감정탐색, 마음 들여다보기, 그저 이해하는 깊은 명상, 페르소나, 마음도형 함께 그리기, 춤 테라피, 바디스캔, 히타요가 등	45시간	20명
- ※ 강사: 광주여자대학교 전임교원
- 모집기간: 2018. 09. 03(월) ~ 2018. 09. 28(금)
- 교육기간: 2018. 10. 02(화) ~ 2018. 11. 22(목)
- 교육시간: 매주 화, 목 18:00 ~ 21:00
- 교육장소: 광주여자대학교 강의실 및 실습실(추후 안내)
- 교육특전: 교육비 지원(재료비 포함), 교재 제공, 수료증 발급 등
-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접수
방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여대문 1층 315호 평생교육원
전화: (062)950-3583~5

"마음을 관찰하다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미묘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때 직관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더 명료하게 사물을 보게 되며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스티브비리스(1955-2011)

주최 |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Gwangju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 주관 |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